

“최대현안 ‘먹고사는 문제’... 삶 개선에 4년 걸겠다”

3년임 박원순 서울시장 기자회견

주거·돌봄 등 5개과제 해결 약속
공공주택비율 10% 이상 만들 것
전기차 8만대 도입 ‘미세먼지 감축’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7기 제37대 시장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사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서울시장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서울의 최대 현안은 바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4년, 제 모든 것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데 걸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에 ▲카드수수료 문제 ▲임대차 문제 ▲돌봄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크게 5가지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선 “생존에 기로에서 있는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까지 카드수수료 0%대 인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구출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 시장은 이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의 진원지인 임대차문제도 해결하겠다”며 “서촌에서 일어난 공중폭발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여성경력단절,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정 투자 계획도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8조원에 이르는 채무감축을 통해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다”며 “이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저 박원순에게 시민들은 역사상 최초 3선 서울시장이라는 명예를 안겨주셨다”며 “서울시 24개 구청장, 102명의 서울시의원과 손발을 맞춰 제대로 서울을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일문일답.
-임대차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

는데, 입법 문제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절망을 보여준다.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지만, 공공의 필요성이라든지 안전보장, 질서유지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영속적인 발전과 건물주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

미국은 시장에 특정지역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뉴욕 시장이 가진 권한을 왜 서울시장이 가질 수 없느냐고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나. 이 명확한 진실, 핵심 문제를 왜 피해 가나. 이 문제에 대해 도전하고자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전에 교통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경보 후에 조치하면 소용없다고 비판하던데.

직접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보행 친화 도시나 자전거 도시 조성, 공원 확대, 나무 식재 등 다양한 간접적인 정책을 함께 해왔다. 차량 강제 2부제, 차량 환경등급제 등은 비상저감조치로 계획된 거다. 향후 4년 안에 전기차 8만대를 도입하겠다.

아울러 동북아 13개 도시로 구성된 동북아대기질개선협의체를 구성, 중국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 업계 반발, 법 개정 등 걸림돌이 많은 데 올해 안에 가능한 건가. 앞으로의 로드맵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히 가능하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국적인 아젠다로 확대된 상태. 중국에는 알리페이도 하고 있는데 기술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1000만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노동존중특별시를 넘어 유니온 시티를 구상한다고 하던데.

1800만에 이르는 전국 노동자들이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경력단절녀가 생겨나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법에 있는 걸 사실상 지켜주지 못한 셈이다. 노동행정이 중앙집권에서 지

방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감독권을 중앙 정부가 가지고 이를 지방 노동청을 통해 실행해왔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말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한 내용이다.

시가 노동행정을 이양받는다면 지금보다 더 노동을 존중하는 인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일본처럼 포괄이양법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가 경쟁력이 향상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넓은 고가, 보행자길 만들어 상권 살린다

‘서울로 7017’ 개장 후 상권 활성화
서촌 등 2020년 ‘보행특별시’ 계획

서울역 인근 넓은 고가를 보행자길로 탈바꿈시킨 동네에 상권이 확대되고 매출이 올랐다. 서울시는 올해 서촌, 을지로부터 2020년 북촌, 광화문 등에 이 같은 도시재생 공원을 확대해 ‘보행특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 넓은 고가를 보행자 전용길로 바꾼 ‘서울로7017’과 그 일대를 보행특구로 지정한 이후 실제 보행량이 늘고 상권이 살아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서울로7017’ 보행특구는 ‘1970년 만들어진 고가도로가 2017년 17개의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시 태어난다’의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역 옛 고가도로 구역을 포함 만리동, 회현동 일대 1.7㎢의 공간을 의미한다.

시가 발표한 서울로7017 보행특구의

지난 1년 간 보행량·상권변화·이용자 인식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로 7017 개장 후 지난해 9월 보행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계절(겨울)적 영향으로 지난 1월엔 보행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전체 평균 보행량은 2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행특구 내 유동인구도 개장시점 대비 6.6% (2017년 9월 기준), 2016년 동월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새 140%라는 소매상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보행특구 내 업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카드매출액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의 증가는 가로 활성화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행인구 증가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서울로7017 이용 시민 680명을 대상으로 경관, 편의성, 관광 등의 측면에서 보행특구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주요 가로 17개 노선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별 가로 성격을 고려해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보행특구 내부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 5개 지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올해 ▲서촌 ▲을지로를 시작으로 2019년 ▲명동 ▲장충 ▲혜화, 2020년 ▲북촌 ▲정동 ▲무교 ▲광화문까지 녹색진흥지역(16.7㎢)으로 지정된 도심부 전역으로 확대해 ‘보행특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심부 차량 속도제한을 추진하고, 우회할 필요 없는 교차로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보도와 단차가 없는 고원식 횡단보도 확충 등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연계성을 높여 보행수요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오진희 기자 valere@



한글학교 선생님들 ‘한자리예’

전 세계 한글 학교 선생님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재외한글학교 교사의 역할을 알리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태양광 펀드’ 수익 9.6억 시민에 공유

매출액 36억... 연평균 이자 4.18%

전국 최초 시민공모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를 모집했던 서울시의 ‘제1호 태양광 펀드’가 3일로 가입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완료했다. 3년 동안 시는 이 투자금으로 가동시킨 4곳의 발전소에서 매출액 36억원을 올리면서,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시민에게 수익을 공유했다. 분배한 이자비용은 약 9억 6000만원으로 총 매출액 27% 규모다.

서울시는 ‘제1호 태양광펀드’의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 펀드는 지난 2015년 8월 전 국민을 대

상으로 KB투자증권 금융상품(KB서울햇빛발전소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모집했으며 모집금액은 총 82억5000만원이다. 모집 당시 시민참여 의미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는데, 총 가입자수는 1044명,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790만원으로 인기리에 마감된 바 있다.

투자금은 지족·개화·도봉·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4개소에 총 4.24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로 전액 사용됐으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3년간 발전소 관리운영을 전담토록 했다. /오진희 기자



고덕차량기지 태양광발전소.

/서울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받아요”

27일까지 후보자 추천·접수

서울시가 올해의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을 위해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계속 3년(또는 총 거주 5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시 방문 주요외빈 중 시정 발전에 기여했거나 귀감이 되는 사

회활동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공공단체의 장이나 사회단체장 혹은 30인 이상 시민이라면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자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추천양식을 작성해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서울시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되거

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받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밖에도 서울대공원,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DDP(자체 기획전)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요시설에 무료입장 혜택이 제공되며, 민간시설로는 롯데월드에서 자유이용권 환인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적심사 및 시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시민을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중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